

제 124 호

부활 제 3주

1975. 4. 13.

# 순정이

발행인	김택
인쇄인	범석규
주조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②3498)

□ 강론 □



## 예수부활 3주

김영일 신부

오늘 성경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여기서 우리와 함께 묵어 가십시오. 하루해도 다 가고 저녁이 가까웠습니다” (누가 24장 29절)하고 애절하게 이야기한 사실입니다. “주여 우리와 같이 묵으시라”하는 것은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우리들의 일생은 때론 고통스러운, 특히 오늘과 같은 현실 물가고에 시달리고 정가 불안정, 이웃끼리의 메마른 인정,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평온한 마음이집속에서 생활할 것인가?가 문제들입니다.

오늘 읽으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우리들은 이스라엘을 구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했었는데, 그러나...” 그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실망한 두제자들의 희망없는 걸음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께서는 그들과 같이 여행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잃은 슬픈 여행에서 주를 다시찾는 기쁨의 여행으로 변했습니다.

고통을 다시한번 생각해보면 고통은 언제나 걸림들이고 크나큰 스캔들이며, 믿는 우리들에게 하느님께 대한 신앙의 시련들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이 시련을 하느님의 힘과 사랑 안에서 신앙과 일치 시킬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고통은 유년기의 환상적 신앙에서 힘겨운 생활에 대한 환멸을 느끼나머지 희망도 꿈도 없는 불신까지 이르릅니다. 여기에서도 엠마오의 두제자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모범으로 인도해주고 가르쳐줍니다. 그들의 정신을 일깨워 주고 그리스도를 다시 찾는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을 제시해 주시고 당신 말씀인 성경을 먹여주십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가 뜨거운 감동들을 느끼지 않았던가?” 성경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느님의 위대한 구원계획이 무엇인가를 또한 그 가치가 어떠한가를 알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며 여로에 있는 우리들에게 방향 지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빵을 나누시면서 개인적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다” 즉 성경의 해석에 빵을 나누는 신비가 연이어질 것으로 두 사제의 제시가 결합됨으로써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공부하고 반성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성체를 받아 모신다면 그리스도 우리와 같이 머물면서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안에 자리잡을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여정은 주님이 안제시는 생활과 주님과 함께 하는 생활의 차이를 깨달을 것입니다. 그분 아니라 사목현장에서 말하는 슬픔에서 기쁨, 희망에서 희망으로 가득차게 될 것입니다.

(서학동 주임신부)

### \*이 주일의 미사\*

(1) 개회식

□ 입당송 온 땅은 춤추며 하느님을 기리라. 그 이름의 영광을 노래하여라. 알렐루야.

(2) 말씀의 전례

□ 제1독서(사도행전 2: 14, 22-28 성서 P 266)

예수께서는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계실분이 아니었다. □ 증제송 ○당신은 나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는 이 몸이오이다. 야훼께 아뢰오니 “당신은 나의 주님, 주님은 나의 기업, 내 잔의 붓이시니, 내 제비는 오로지 당신께 있나이다.” ○

□ 제2독서(베드로 전서 1: 17-20 성서 P 529)

흠없는 어린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구원되었다

□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 예수여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제, 우리 마음 뜨겁게 하소서. 알렐루야.

□ 복음(누가 24: 13-35 성서 P 199)

빵을 떼어 주실 때 예수를 알아뵈었다.

□ 신자들의 기도

1. 전능하신 주여, 답답하기만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 교회를 도와주소서. ○주여...

2. 부당하게 죽음을 당한 그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 하오니 당신의 인자하신 사랑으로 간짜 주시어 삶의 용기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주시며, 아울러 나라의 위정자 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올바른 것을 생각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소서 ○

3. 고통받는 사람들의 위로자이신 주여, 어려운 생활을 헤쳐 나갈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소서. ○

4.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서 기도 하오니, 미약한 자들을 불쌍히 보사 그들을 위로주소서 ○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친주여, 당신 백성들의 이 간절한 호소를 들으시어 구하는 바를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비나이다. ○아멘

(3) 성찬의 전례 □ 성찬식

□ 영성체송 빵을 떼어 주실 때 제자들이 예수를 알게 되었다. 알렐루야.

### 순정이 산책





## 사제양성 후원사업, 어디까지 왔나?

사제양성 후원기금이 교형 여러분의 뜨거운 협조로 11,963,000원이 청약되었다. 1차년도 목표액인 1,000만원은 넘었으나, 2차년도 목표액인 2,000만원에는 크게 미급하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청약된 액수가 제대로 불입되지 않는데에 있다. 경제적으로 모두들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사제양성 후원사업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노력해야 하겠다.

협조해 준 본당의 신자 1인당 부담금과, 본당이 금년에 교구에 내야할 교구비와 청약액의 백분율(%)을 통계로 내보았다. 놀라운 것은 복자성당 교우 1인당 부담액이 815원이고, 본당신부님도 안계신 대야성당의 1인당 부담액이 278원이라는 점이다. 또한 시골인 진안성당의 1인당 부담액이 341원이고, 교구비에 대한 백분율이 270%로 가장 높다는 점이다.

※ 사제 양성 후원 기금 청약 현황 및 교우 1인당 부담금, 교구비에 대한 청약액 백분율 (%)

지구	본 당	청 약 액	교 우 수	1인당 부담	교 구 비	이에 대한 청약액 %	
제 1 지구	고 김 부 수 신 정 대	창 제 안 류 인 음	100,000원	751명	133원	164,000원	61%
			100,000	2,356	42	510,000	20
			250,000	2,059	121	323,000	77
			—	1,154	—	127,000	—
			—	1,569	—	350,000	—
			550,000	2,452	224	473,000	116
제 2 지구	대 동 울 명 일 종 합 화	야 동 동 동 열 산	187,300	673	278	82,000	228
			675,000	2,327	290	869,000	78
			—	2,012	—	723,000	—
			100,000	1,119	89	378,000	26
			200,000	3,416	59	510,000	39
			250,000	1,246	201	223,000	112
제 3 지구	고 금 삼 여 주 창 황 현 인	산 산 케 산 동 동 등	—	2,217	—	255,000	—
			120,000	1,333	90	259,000	46
			—	1,644	—	382,000	—
			250,000	1,554	161	209,000	120
			500,000	1,222	409	459,000	109
			200,000	2,278	220	787,000	64
		718	279	132,000	152		
제 4 지구	노 덕 복 서 전 중 송 학	동 진 자 동 동 양	—	2,257	—	587,000	—
			80,000	1,855	43	468,000	17
			1,160,000	1,424	815	596,000	195
			721,700	2,791	259	578,000	125
			1,550,000	3,207	483	1,106,000	140
			2,519,000	3,580	704	1,142,000	221
제 5 지구	남 부 순 임 장 진 원 주 창 실 계 안	원 주 창 실 계 안	50,000	1,637	31	359,000	14
			100,000	847	118	109,000	92
			—	422	—	82,000	—
			—	840	—	159,000	—
			300,000	2,599	115	309,000	97
			1,000,000	2,929	341	370,000	270
기 타		500,000	※군산 어느 목지가				
계		11,963,000	56,488	212	13,080,000	91.5	



□1975년은 성년(聖年)□

□정의에 목마른 소리□

# 폭력은 폭력을 유발한다

헬더 까마라 대주교

아무도 노예가 되기 위해, 태어나지는 않았다. 아무도 부정과 굴욕과 강요를 달가와 하지는 않는다. 인간 이하의 처지에 있는 사람은 수렁에 빠진 소나 나귀 같은 질승을 연상케 한다.

그러나, 오늘날 소수 특권층의 이기주의는 많은 사람들을 인간 이하의 생활상황으로 그러니 강요와 굴욕과 부정에 시달리며, 장래에 대한 아무런 전망이나 희망도 없이 마치 노예처럼 그날 그날 연명해야 하는 비참한 처지로 몰아넣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폭력을 유발한다. 폭력 제1호가 폭력 제2호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억눌린 자들의 폭동이나, 혹은 보다 공정하고 인간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기로 결심한 젊은이들의 봉기가 바로 폭력 제2호다.

물론 이 폭력 제2호는 대륙에 따라 차이가 있고, 또 나라와 도시에 따라 변화가 있어, 저마다 그 양상, 색채, 뉘앙스를 달리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말해서, 오늘날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떴다.

정부 당국자들과 특권층은 그들의 배후에 외부 첩자들이 암약하고 있는데 놀라고 있으며, 이들을 <전북 음모자> <선동자>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소위 피압박자들의 해방을 위해 투쟁한다는 사람들이 자주 위협시 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장 폭력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편 종교인들도 가끔 문제시 되고 있다. 깊은 신앙을 가진 그들은, 종교를 민중의 아편(阿片)으로 착각하는 것, 즉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에서 멀어지게 하고, 또 현실을 멀리하게 하는 소외적 기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 통념(通念)과 그러한 종교 생활을 더 이상 좌시(坐視)할 수가 없어서, 인간 이하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인간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종교가 적극적인 봉사(奉仕)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당국이나 특권층은 위의 두 그룹을 전혀 구별하지 않고, 종교인들이란 (성직자나 평신도나) 근본적인 개혁, 곧 사회 구조를 바꾸고, 정치를 종교로써 대체(代替)하려는 무리로서, 좌익(左翼)의 극렬주의(極烈主義)에 물들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공산주의에 길을 열어주는 맹랑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두 가지 근본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다. 즉,

—첫째로, 정부 당국이나 특권층은 <선동자들>이 없으면 억압당하고 있는 자들은 앞으로 계속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대중 홍보 수단 및 교통수단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 갖가지 사상(思想)의 유포(流布)와 뉴우스의 전파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웃음거리이다.

—둘째로 일방적이고 광적인 반공은 사회의 부조리 현상에 일단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 부조리 현상이야말로 부정이 뿌리를 박는 첫째 온상(溫床)이다. 그리고 그 부정과 싸움이 자칫하면 “공산주의에 문을 열어 주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억압당하고 있는 계층이 어떤 직접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을 때는, 다소간에 심각한 소요를 일으킨다.

그들이 아무런 희망도 없기 때문에 어떤 숙명론에 젖어 아예 체념해 버리거나, 혹은 압도적인 힘의 강압으로 그들을 꺾어버리게 내버려둘 때에는, 특히 부정과 불의를 좌시할 수 없는 젊은이들이 전면에서 나서게 된다.

젊은이들은, 특권층이 그들의 특권을 포기하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만한 인내심이 없다. 젊은이들은, 정부가 가끔 특권 계급과 너무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다고 생각한다. 젊은이들은 교회도 신뢰하지 않는다. 교회는 훌륭한 가르침—중요한 문헌들과 주목할만한 해석—을 가지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그것을 현실에 옮겨 실천하려는 결심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더욱 과격해지고 폭력의 길로 치달게 되는 것이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유발한다. 우리는 두려움없이 몇번이고 되풀이해서 말한다. 부정과 불의는 억압자들이나 혹은 보다 공정하고 인간적인 세계를 건설하기로 결심한 젊은이들의 폭동을 야기시킨다고.

## 요심이 (90) 김병오



**\* 교형 여러분의 집 \***  
 개점 1주년 할인판매  
 삼성 T.V 대리점  
**삼성 전주 센터**  
 T.V, 냉장고, 전기용품 일점  
 박영옥(누시아)  
 전주극장입구 전화 ⑤ 5893

**K.S.사자표 페인트 대리점**  
 반도카슈 대리점  
 표구제로 각종한지  
 실크 솔일벽지 파이텍스  
**대동 지물상사**  
 전주시 풍남동 1가17번지  
 전화 ⑤ 5986  
 임정원(도민교)

**※ 신자들의 건강 센터 ※**  
**※ 신자들의 집 ※**  
**성심당 한약방**  
**대지사진관(2층)**  
 이 상 범(필노리아노)  
 육교빌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③ 6544

**※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빌 중앙 시장동  
 (전화 ④4577)

**※ 집단장 청부. 문의 환영 ※**  
**금강 페인트사**  
 <고급도로. 방수액. 흑판등>  
 전화 ③0876 김 데레사  
 소방서 북편. 결핵협회 옆



###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본당 순회 교육 (4월13일 오전 10시-오후 4시)-노송동, 덕진, 상관 성당.  
(4월20일 오전 10시-오후 4시)-주류, 순창, 입실 성당
2. 김종택 부주교님 은경 축하식(4월14일): (미사)11차, (파티)12차 많은 교우분들의 기도와 협조를 바람
3.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 (4월 16-18일, 가톨릭 센터, 회비 2,500원)
4. 제1차 여성 꾸르실로 (4월 22-25일, 가톨릭 센터, 회비 4,000원)
  - ① 참가를 희망 하시는 분은 본당 신부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② 본 교구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여성 꾸르실로의 성공을 비는 기도 부탁 드립니다.
5. 레지오 마리에 아치에스 행사: 오늘(13일) 오후 2시 전동 성당에서 행동 단원 및 협조 단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복자, 서학, 천동)
6. 가족계획 세미나 개최: 4월19일 오후 2시-20일 오후 5시. 가톨릭센터에서.  
<참가비> 시외: 1,500원 (1박2일) 시내: 1,200원

#### (중양)

전화 ②2651 주임 신부 이대권  
②3874 보좌 신부 박종상  
사도 회장 김영진

1. 5월의 마돈나 꾸리아 월례회: 오늘 오후 2시
2. 성모회 월례회: 세째주일 공식 미사후
3. 신용조합 이사회: 18일 밤 9시. 조합 사무실
4. 신용조합 월례회: 19일 밤 8시, 럭키에식당
5. 주일 봉헌금에 협조를 바랍니다.
6. 성모 유치원 개원에 물심양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7. 주일학교 아이들을 내 보내어 교리를 배웁시다.

#### (복자)

전화 ②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복자 성우회 제19차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본당과 교구 살림에 관심을 가지고 교무금을 속히 완납하여 주시며 주일 봉헌금에 정성을 다 합시다.
3. 정성어린 성미를 봉헌합니다.
4. 신용조합 월례회: 다음주
5. 학생회 월례회: 공식 미사후  
①지난주 성미: 1말 5되 누계 376,8되

####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합승천  
사도 회장 조해형

1. 신용조합 월례회: 공식 미사후
2. 애령회 간부 월례회: 다음주
3. 부주교님 은경축을 맞이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주일 금 봉헌시 같이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학생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5.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우아동 학생 이틀없이: 5,000원 중노1가 이기환: 1,000원  
우아동임기철: 500원 중노1가 한완남: 500원  
중노2가 이틀없이: 10만원 중노1가 임종섭: 500원  
누계: 107,500원 누계: 2,100,017원  
성당 신축 성미: 1말 4되, 누계 252말

#### (서학동)

전화 ②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1. 오늘 헌금은 부주교님 은경축을 위함이니 성의껏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일>
2. 반회합<16일> 8시30분 15반, <18일>8시30분13반
3. 꼬미씨음: 20일 1시30분(간부 전원 출석 요망)
4. 성소주일(20일) 오후 2시에 신학생 학부형 및 학생회 전원 참석 바람
5. 애령회 발족: 4. 22일 오후 8시30분, 성당 회의실 사도임원 전원과 각 구역장 반장님들 전원 참석
6. 신용조합 이사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 (덕진)

전화 ② 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종환

1. 교구 순회교육: 오늘 10시~오후 4시
2. 젊은이 단합대회: 27일 9시30분 성당 출발.  
장소: 송광사 위봉폭포
3. 애령회 성미(줄두리 쌀) 모금에 교우 전원 협조요망
4. 신용조합 월례회: 다음주로 연기 <4. 20>

#### (전동)

전화 ② 3222 주임 신부 김한철  
사도 회장 인권재

1. 사도회 월례회: 밤 8시 미사후
2. 성 가정회 일일대실: <미미제과 2층>: 4월13일
3. 대신 신용조합 1억 돌파 기념 월례회 개최:  
14일 밤 8시.참석자에게 기념품 증정
4. 자모회: 공식 미사후
5. 예비자 교리: 일, 수요일 저녁 8시30분
6. 61주년 기념 성미: 7말 5되 <78세대>

금주의 숭정이 은인께 감사드립니다  
장 방지거(영기) 남문열 미성당 시계점

###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제1지구	고길부신정	창계안인읍	3,365원	제3지구	주현동창인동	중각 증축, 제의실 확장 완료	28,465원
		심원공소 특별 교리 실시 반 회장 월례회 성모회 월례회 사도회임원 신심단체임원임시총회 부주교님 은경축 축하합니다	17,410원 5,770원 1,990원			성신회 월례회 부주교님 은경축 축하합니다	
제2지구	대운울명	야동울명동	2,440원	제4지구	안동진사학동	5월의 마돈나 꾸리아 월례회	53,761원
		본당 주회 지도자 목상회 청년회 부주교님 은경축 축하합니다	33,590원			신용조합 월례회 젊은이 단합 대회 성우회 월례회 부주교님 은경축 축하합니다	
제3지구	고금여	산산산	13,380원	제5지구	남주계안창	사도회 월례회 어린이 전교회 가입 신청 바람	11,750원 4,225원
		사도회, 구역장 연석 회의 신우회 월례회 부주교님 은경축 축하합니다	10,585원 37,580원			성가 연습	